

Title : “조용한 시간에...” *“In A Quite Time”*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이상 현상이 여기 저기서 일어난다. 몇 주전에 잠 자리에서 눈을 뜨려고 하니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5 일간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안과에 가서 진단해 보니 세균 감염이란다. 안약을 넣고 며칠 관리를 하던 중 다음 날 감기 증상처럼 기침을 좀 하더니 귀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다. 눈도 그렇지만 귀는 생전 아파보지 않았던 터라 통증이 몹시 괴로웠다. 몇시간을 참다가 오후쯤 되어 응급실에 갔다. 응급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힘들고 아파서 의사를 만나기 위함인데 기다리다가 병을 더 얻겠구나 하는 생각은 마찬가지로였다. 이상하리만큼 내 뒤에 온 환자들까지 다 불러 들어갔는데 내 이름을 통 부르지 않았다. 통증도 힘든데 왜 이렇게 나를 잊어버린건 아닌가 해서 접수인에게 물어봤는데 내 차례가 아직 아닌 거라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한다. 그렇게 두시간을 기다린 후에 의사를 만났는데 청진기로 등과 가슴쪽에 숨을 내쉬어 보라며 갔다 데고는 귀를 들여다 보고 약 처방해 줄테니 5 일간 먹으면 나올 거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 분이 채 안 걸렸다. 약 처방을 받아 들고 약국으로 향해 약을 받아서 먹고 3 일째가 되는 날부터 통증은 가라앉았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오른쪽은 거의 안 들렸고 왼쪽은 아주 바짝대고 말하면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로 들렸다. 응급실에서 5 일분 약을 주었으니 다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5 일째 약을 다 먹었는데도 청력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기침을 했고 들리지 않는 불편함과 불안함도 점점 커져만 갔다. 내 말로 시원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국인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만성 중이염’ 이니 응급실에서 준 약은 계속 먹으면 안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지난 5 일간 먹어서는 안되는 약을 먹었던 말인가..... 집에 돌아와서 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2 주간의 약을 먹으며 청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집 식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귀에서는 바람이 부는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 시냇물이 줄기차게 흘러가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사무실에 할 일이 쌓여 있어서 나가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말을 건네오지만 귀로 들리는 것은 없고 감각으로 쳐다보면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 세상은 참으로 조용하다...” 라면서 나의 상태를 밝혔다. 그랬다. 자연의 소리만이 끊임없이 내 귀를 울렸지만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주복음방송에서 한번씩 이런 멘트가 흘러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는 생명이 되는 소리만 전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즘 내 귀에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안 들리고 꼭 들어야 할 소리만 귀를 쫓듯이 세워 집중해서 듣는다. 그러다 보니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된다. 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그렇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소리를 듣고 있다. 어떤 소리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가 하면 어떤 소리를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소리도 있고 파괴시키고 전쟁하는 소리도 있다. 그뿐이 아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소리도 많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리, 생명을 주는 소리, 영적인 잠에서 깨워 주는 소리, 회복시키는 소리, 사랑의 소리가 있다. 부정적인 소리와 분리시키고 멸망으로 몰고가는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지만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 사람을 살리는 소리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고 사랑하며 사모해야 들리는 것 같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감'이 있잖은가 말이다. 적어도 어떤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감, 귀가 안들렸어도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그쪽을 향해서 돌아보는 직감! 그렇지만 그직감은 폭발음과 지구가 돌때 나는 굉음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 한계가 있음도 우리 신체의 신묘막측한 창조자의 원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감' 까지....

왕상(1 King) 19:12 “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a gentle whisper)가 있는지라.”